

개화기 소설의 구술성과 기술성

- 이인직의 「은세계」를 중심으로

김 종 욱*

차 례

I. 개화기와 근대 인쇄문화로의 전환

III. 「은세계」에 나타난 구술성의 흔적들

II. 개인 창작물로서의 「은세계」

IV. 「은세계」의 과도기적 성격과 의미

I. 개화기와 근대 인쇄문화로의 전환

「은세계」¹⁾는 1908년 11월 15일부터 원각사에서 “신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되었고, 닷새 뒤인 11월 20일에는 동문사²⁾에서 상권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단행본의 표지는 ‘은세계’의 각 글자를 ‘신연극’의 집자(集字)로 표현함으로써 개화기의 연극 개량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소설과 연극 분야에서 이 작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펼쳐왔고, 상당한 연구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본고에서는 서술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은세계」를 지칭할 때, 신소설 「은세계」와 신연극 「은세계」를 구분한다. “신연극”이라는 명칭은 원각사에 공연된 「은세계」의 장르적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대의 명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 2) 동문사는 1908년 8월 21일 경에 “蒐集文撰集遺文”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총재 김학진, 부총재 남연철, 사장 이용직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완용 내각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신소설 『은세계』 연구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작품의 비정합성과 관련된다. 『은세계』는 반봉건의 시대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반봉건 의식과 식민주의 의식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최원식은 신소설 『은세계』의 성립 과정에서 광대들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공연에 직접 참여했던 광대들의 회고록을 인용하여 신연극 『은세계』가 창극의 형태로 공연되었던 『최병두 타령』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판소리 광대들에 의해 “협률사 시절의 창극 실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판소리 『최병두 타령』을 장기간의 연습을 거쳐 공연함으로써 개화기 연극운동의 정점에 도달했다”³⁾라고 말한다. 그런데, 근원설화(최병두 이야기) ⇨ 창극(『최병두 타령』) ⇨ 신소설(『은세계』)이라는 발전 과정을 설정하고, “소설 『은세계』의 전반부는 『최병두 타령』의 개작이고 후반부는 이인직의 창작”으로 규정하면서 신연극 『은세계』(창극 『최병두 타령』)와 신소설 『은세계』가 별개의 작품인 것 같은 오해를 낳게 된다. 최원식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김종철⁴⁾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강원도 강릉 지방에 대한 현장조사와 개화기의 여러 자료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은세계』의 근원설화를 이루고 있는 최병두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 『최병두 타령』의 존재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근원설화 ⇨ (판소리) ⇨ 창극 ⇨ 신소설이라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발전도식에 따라 설명한다.⁵⁾

이렇듯 최원식과 김종철은 판소리를 조선 후기부터 발전하고 있던 민중들의 반봉건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예술양식으로 파악하면서, 최병두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가 별개의 작가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에 직접 참여했

3) 최원식, 『『은세계』 연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52면.

4) 김종철, 『은세계』의 성립과정 연구, 《한국학보》 1988.여름, 116면.

5) 김종철은 「판소리의 근대문학 지향과 『은세계』」(『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에서 판소리 『최병두 타령』을 모태로 원각사 성립 전에 이미 소설 『은세계』가 창작되었으며, 창극 대본에 있어서는 이인직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한다.

던 판소리 광대들의 회고록이다. 그런데, 3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회고의 특성상 당대의 기록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상경⁶⁾은 당대의 신문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병두 타령』의 실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양승국⁷⁾ 역시 개화기에 사용되었던 ‘신연극’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은세계』의 신연극적 성격은 내용면에서는 두드러지지만, 종래의 창극 형식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은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판소리 『최병두 타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설 『은세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판소리 『최병두 타령』의 존재 여부와 창극 『최병두 타령』의 공연에 참가했던 판소리 광대들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신소설 『은세계』와 신연극 『은세계』 사이의 관련성을 살피고, 『은세계』의 창작과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에 앞서 신소설 『은세계』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살필 것이다. 그렇지만, 신소설 『은세계』가 개인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내지는 창극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신소설 『은세계』가 발표되던 시기가 구술성⁸⁾이 지배하던 문화에서 기술성이 지배하는 문화로 전환되던 과도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술언어로 표현된 것만이 구술성을 지니며, 문자언어로 표현된 것은 기술성을 지닌 것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구술성과 기술성이란 표현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에도 구술성이 남아 있고, 말에도 기술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많은 문화와 하위문화(subculture)가 고도 기술문화를 접하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차적인 구술성의 사고양식을 상당히 간직”⁹⁾하고 있다는 지적도 구술성과 기술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가

6) 이상경, 『『은세계』 재론 - 이인직 연구 1』, 《민족문화사연구》 5, 1994.

7) 양승국, 『한국현대희곡론』, 연극과인간, 2001

8) 본고에서 사용되는 구술성(orality)의 개념에 대해서는 윌터 J.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을 참고할 수 있다. 옹은 이 책에서 구술성을 “쓰기(writing)를 전혀 알지 못하”(14면)는 일차적인 구술성(primary orality)과 “전화·라디오·텔레비전 등 그 밖의 전자장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있는”(22면) 이차적인 구술성(secondary orality)을 구별하고 있다.

9)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22면.

지닌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마사오 미요시가 일본 근대문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최근대 / 근대화 단계에서 서구소설과 일본소설의 차이는 소설에 두드러지는 구술적 잔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소설이 아직도 구술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은 구술적이지 아니며, 다른 서구 소설들처럼 인쇄된 이야기다. 그러나 비록 인쇄형식 속에서도 일본의 소설은 많은 구술적 측면을 유지하고 있다. 서구의 현대소설이 허구, 미세한 배경, 검증, 분석, 공간성, 거리감, 한축 부연, 엄청난 길이, 빼어난 문학적 완성미, 인물 묘사에 있어서의 깊이와 내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구술문학은 암기, 공식, 반복, 과시, 일회성, 근접성과 친밀성, 고립·의례·삽화 같은 간결함과 단편성, 공유된 배경, 그리고 인물의 사회적 역할, 관계의 설정 등으로 특징지워진다.¹⁰⁾

여기에서 미요시가 일본 소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개화기의 우리 소설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에 창작된 신소설들은 근대적인 출판과 유통, 제도 등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기술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¹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술성이 인쇄 자본주의 내지는 기술문화로의 변화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개화기와 같이 과도기적 상태에서는 구술성과 기술성이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신언극 『은세계』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공연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한 구술성은 훨씬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10) 마사오 미요시, 『지구로의 전환 : 문학 다양성 그리고 총체성』, 『경계를 넘어 글 쓰기』, 민음사, 2001, 729면.

11) 구술문화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였던 판소리 역시 인쇄 출판문화와 결합하면서 점차 기술성을 획득해 나간다. 판소리의 구술성이 판소리계 소설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기술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김병국의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출판부, 1996)과 김현주의 『구술성과 기술성의 관련 양상과 판소리 서사체』(『구술성과 한국 서사전통』, 도서출판 월인, 2003.), 그리고 최진형의 『판소리 서사체의 구술성과 기술성』(《고전문학연구》 11, 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II. 개인 창작물로서의 「은세계」

「은세계」는 1908년 11월 15일 원각사(圓覺社)에서 공연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¹²⁾ 원각사는 1908년 7월 26일 설립된 현대식 극장이다. 원각사가 있던 자리는 원래 협률사(協律司)¹³⁾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1906년 4월 협률사가 폐쇄된 이후 ‘관인구락부(官人俱樂部)’가 1908년 1월까지 사용하다가 남대문으로 이전하자, 김상천(金相天), 박정동(朴鼎東) 등이 이완용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인직과 손잡고 사설극장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원각사가 경시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날짜는 1908년 7월 20일이었고,¹⁵⁾ 개관 공연이 개최된 것은 7월 26일이었다.¹⁶⁾ 그런데, 원각사는 출범 당시부터 이동백을 단장으로 가기(歌妓) 24명과 명창(名唱) 40명을 모집하여 대규모 공연단체를 구성한다.¹⁷⁾ 이 때문에 당시 여러 신문에서 원각사의 공연 준비 상황을 자주 보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게 된다.

(1) 《大韓新聞》社長 李人植 氏가 我國 演劇을 改良하기 爲하여 新演劇을 夜珠峴 前 協律社에 創設하고 再昨日부터 開場하였는데, 「銀世界」라 題

12) “本社에서 演劇을 設施한지 數月에 江湖 僉君子의 厚眷을 蒙하여 益益擴張이온 바 閱月 渴望하시던 ‘銀世界’ 新演劇이 今○準備이웁기 來 15일부터 設行하오니 有志僉彦은 如雲來覽하심을 務望.”(「은세계」 신연극 대광고,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3일)

13) 협률사(協律司)는 1902년 8월 15일 고종의 어극(御極) 40년을 기념해 칭경례식(稱慶禮式)을 관장하기 위해 봉상사(奉常寺 : 지금의 종로구 새문안교회) 내에 설치되었다. 협률사에서는 가무녀(歌舞女)를 조직하는 한편 고종의 칙명을 받은 김창환(金唱煥)이 주석이었고 강용환(姜龍煥)·송만갑(宋萬甲) 등 전국의 명창 17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1903년 무렵 경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의 손으로 넘어가 사설극장으로 변모하면서 협률사(協律司)도 협률사(協律社)로 바뀌게 되었고, 1906년 4월 경에 이필화(李苴和)의 상소로 혁파되었다.

14)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0일.

15)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1일.

16) “本社에서 7月 26일부터 演劇을 開始이온 바, 京城 內에 第一 屈指하는 歌妓가 24名이오, 唱夫는 名唱으로 著名한 金昌煥 등 40名이온되, 處所는 夜珠峴 前 協律社이오며, 時間은 每日 下午 7時에 開하여 同 12時에 閉하겠사오니, 一般 僉君子는 如雲來臨覽하심을 務望”(《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6일)

17) 《황성신문》, 1908년 7월 26일.

한 小說로 倡夫를 敎育하야 2個月 後에는 該 新演劇을 設行한다는데, 衆多한 倡夫 敎育費가 巨大하므로 幾 經費를 補助키 爲하여 7月 26日부터 2個月間은 每日 下午 7時로 同 12時까지 營業的으로 我國에 固有하던 各種 演藝를 設行한다더라.¹⁸⁾

(2) 圓覺社에 雇傭하는 倡夫 等이 「銀世界」新小說을 嫻熟히 練習한 故로 來月 1日부터 該 演劇을 開始하기로 豫定하였다더라.¹⁹⁾

(3) 我國의 舊日 演劇이 移風易俗에 大不可하므로 文明國에 多年 遊覽한 演劇 大方家 菊初 先生의 新小說이 出하여 圓覺社 演戲場의 好材料를 供하였으니, 實로 開進上에 萬幸이오마는, 請컨대 先生은 過去 演劇은 고만 停閑하고 腦髓를 更費하여 未來 演劇을 準備하시오. 近時代 我政府 一通의 景況을 模寫하여 假面에 形容하고 言辭도 註解하였으면, 昔日 「山頭都監」의 망석중, 취발이, 박첨지가 모두 다 쏘아질 것이니 그때 觀光者의 재미가 어떠하겠소.

評曰 此 未來 演劇準備가 似甚不難하니 先生 小著 「鄭監司 打令」에 更進一步가 未知如何오.²⁰⁾

인용문 (1)~(3)에서 드러나듯이 당대의 신문기사에서는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소설 「은세계」를 대본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인용문 (3)에서는 「은세계」라는 이름 대신에 「정감사 타령」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신소설 「은세계」의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 정감사와 최병도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감사 타령」 역시 「최병두 타령」과 함께 「은세계」의 별칭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원각사에서 공연되었던 신연극 「은세계」는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1908년 6월 12일 《대한매일신보》에 정치소설 「은세계」에 관한 광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²¹⁾

18) 《황성신문》 1908년 7월 28일.

19)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6일.

20) 《황성신문》, 1908년 10월 7일.

21) 이상경은 이러한 여러 사실에 주목하여 「은세계」가 일단 “《대한신문》에 연재되었고, 1908년 6월 경 연재가 끝났을 때 단행본 출판을 계획했으며, 한편으로 원각사를 설립하여 소설 「은세계」를 가지고 창극 형식으로 공연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상경, 「은세계」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1994, 79면).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에 「은세계」 광고가 나타난 후에도 「정감사 타령」이라는

신연극 「은세계」가 공연되던 당시 이인직은 조선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그는 원각사가 개장하고 「은세계」의 공연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일본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간다.

(4) 《大韓新聞》 社長 李人植 氏가 日本 演劇을 觀覽次로 再昨日 下午 10時에 發程하였더라.²²⁾

(5) 我國 現代文學家로 第一 有名한 李人植 氏가 月前에 日本 演劇界를 視察할 次로 渡來하여 現今 本鄉區에 旅留하는데, 本會에서 本月 4日에 歡迎會를 開하였는데²³⁾

(6) 《大韓新聞》 社長 李人植 氏가 日本에 前往하여 屢月逗留하다가 日 昨에 還國하였더라.²⁴⁾

이인직이 언제 다시 국내에 돌아왔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²⁵⁾ 이인직의 귀국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1909년 5월 무렵이다. 1909년 2월 무렵에 귀국을 계획²⁶⁾했으나, 내부대신 송병준 일행을 만나 귀국을 미루다가 5월 중순에야 귀국했던 것이다. 귀국 후 이인직은 평양감사 민영휘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소송을 제기했던 안주 이소사 사건을 연극화²⁷⁾하려고 시도하다가, 7월에 다시 일본에 건너가²⁸⁾ 9월 말까지 머무른다.²⁹⁾ 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일본을 자주 드나들고 있던 이인직이 신연극 「은세계」가 초연되기 시작한 직후인 1908년 11월 20일 동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사실은 소설이 연극에 앞서 이미 완성되었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신문》 연재 후 출판이라는 이상경의 추론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신소설 「은세계」가 연재되거나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이 확정되지 못한 채 이처럼 다양한 별칭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22)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5일.

23) 《대한학회월보》 8호, 1908년 10월 25일

24)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4일.

25) 이 무렵 이인직의 국내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지리 히로키(田尻浩幸)의 「이인직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2000)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26)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7일.

27)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7일.

28)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8일.

29)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4일.

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던 여러 정황들도 소설 「은세계」가 미리 완성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앞서의 《황성신문》 기사(1)를 통해 우리는 「은세계」가 보면 3개월 이상의 연습을 통해서 공연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판소리로서의 「최병두 타령」이 존재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시간이다. 「춘향가」, 「심청가」, 「화용도」 등 기존의 판소리를 공연하고 있던 원각사에서 「최병두 타령」을 위해서 새롭게 3개월 동안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창부의 교육 경비가 막대했다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최병두 타령」은 신연극 「은세계」가 연행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신연극 「은세계」에 참여했던 판소리 광대들이 「은세계」라는 낯선 명칭 대신에 익숙한 「타령」으로 기억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른 판소리들과 달리 「최병두 타령」이 불리워졌다는 문헌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도 「최병두 타령」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은세계」가 판소리 광대들이 창작한 「최병두 타령」을 “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이다. 일찍이 임화는 소설 「은세계」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던지시 암시한 바 있다.

지금 유자후(柳子厚)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한말(韓末) 명사의 족자 중 김옥균의 족자 한 폭이 있다. 이 족자가 「은세계」의 주인공으로 최병도(崔秉陶)라고 불리는 인물과 김옥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자료다. 그 인물이 소설에 씌어지던 최씨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강릉사람으로 김옥균 문하에 출입하다가 이 족자를 얻어가지고 갑신정변이 나기 전 강릉으로 내려간 인물이 실제로 있었다. (……) 물론 이 외에 현재 김옥균 문인으로 그 글씨를 받아갔던 강릉인 모(某)에 대하여 알 길이 없으나 이 사실을 그대로 시인한다 할 것 같으면 같은 강릉인인 이인직이 「은세계」를 쓸 제 그 인물을 ‘모델’ 삼았음이 또한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은세계」 가운데 등장된 최병도라는 주인공의 내력과 사적이 그대로 그 인물의 전기일지도 모른다.³⁰⁾

30) 임화, 「개설조선신문학사」 27회~28회, 『임화 전집』 2(김외곤 편), 도서출판 박이정, 2001, 278~279면.

실제로 『은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은세계』의 시간적 배경은 1884년 갑신정변 무렵부터 작품이 발표되기 직전인 1907년 융희 황제 등극 무렵까지 약 23년 동안이다.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작중인물의 나이 등을 염두에 두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884년 : 봄 최병도(22세)가 서울로 올라가 김옥균과 만난다. 그런데 가을에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김옥균이 망명하자 최병도는 고향인 강원도 강릉 경금마을로 낙향한다.

1887년 : 겨울 최병도가 강원도 감영으로 압송된다.

1888년 : 여름 최병도가 강원도 감영에서 옥고를 겪다가 방면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망한다. 유복자 옥남이 태어나고, 최병도 부인은 실진한다.

1894년 : 옥남(7세)과 옥순(14세)이 김정수와 함께 화성돈으로 유학을 떠난다.

1899년 : 고등소학교 1년생이던 옥남과 옥순이 자살을 시도한다.

1907년 : 융희 황제의 등극과 함께 옥남 남매가 귀국한다.

그런데, 서연호³¹⁾의 꼼꼼한 문헌조사에 의하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감사가 실존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1886년부터 약 4년간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했던 정태호(鄭泰好)가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소론 계열의 명문가의 후예로서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1874년 8월 28일부터 황해 관찰사로 재임하였다. 그런데, 황해도 어사로 나갔던 김윤식에 의해 공금 횡령과 장부 조작, 향시(鄕試) 부정, 송사(訟事) 간섭 등의 이유로 탐학의 논척을 받아 제주도로 유배당하게 된다. 그 후 1879년 2월 9일 방면되어 승지, 충주 목사를 거쳐 강원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1886년 4월 24일 부임하여 1890년 1월 13일 형조판서로 승진할 때까지 약 4년간 정태호가 강원 관찰사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은세계』에서 “강원 감사 정등내 꿈배 정 자는 아니지마는 고밀개는 가지고 왔네”(84면)라는 서술과도 부합한다.

31) 서연호, 『한국 근대회곡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25면.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은세계』에 등장하는 “여상전”이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던 무녀 진령군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³²⁾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충주로 도피했던 명성황후가 민응식의 집에서 만났던 무녀가 진령군이었는데, 그녀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황후의 총애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조병무, 윤영신, 정태호 등이 진령군에게 아부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할 정도였다.³³⁾ 이 사실 역시 작품 속에서 “그 중에 믿을 만한 상전 하나가 있다. 상전 부모라 하니 ‘어머니 어머니.’ 불렀으면 좋으련마는 원수의 나 이 어머니라기는 남이 부끄러울 만한 터인 고로, ‘누님 누님.’ 하는 여상전(女上典)이라.”(32면)와 같은 대목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처럼 강원 관찰사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자, 강원도 관내에서 여러 차례 민란이 발생한다. 1889년 6월 25일 통천·인제에서 소요가 발생하여 윤영창(尹永昌)·심의창(沈宜昌) 등이 처형되었고, 1890년 1월에는 흡곡현에서 민란이 일어나 주모자 이희재(李喜載)가 효수당했으며, 연이어 2월에도 통천군에서 민란이 발생하여 윤직(尹稷)이 처형당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볼 때, 신소설 『은세계』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동백 명창의 회고도 이런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32) 『은세계』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은 김종철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종철은 1987년 11월 19일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금산리 현지답사를 통해서 최병도에 관한 근원설화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문헌조사와 병행되면서 실존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은세계』의 성립과정 연구, 121면.)

33) “중전이 충주로 피신하였을 때, 어느 무녀가 찾아와 환궁할 시기를 점쳐 보았지만 때가 좋지 않았다. 그로부터 중전은 그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환궁할 때 데리고 간다. 중전이 무슨 질병을 앓고 있을 때마다 무녀가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 그 증세가 사라졌다. 이 일로 인하여 중전과 무녀는 날로 친숙하게 되었고, 중전은 그의 말이라면 듣지 않는 것이 없었다. (……)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화복(禍福)이 걸려 있어 종종 수령과 변장들이 그의 손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염치없는 경재들은 그에게 아부하여, 간혹 자매를 뺏기도 하고 혹은 의자(義子)를 뺏자고도 하였다. 그중 조병무(趙秉武), 윤영신(尹榮信), 정태호(鄭泰好) 등이 더욱 심하게 보채었다.” (황현, 『매천야록』 권1,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34)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3, 141면과 151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에서 재인용.

原州 사는 良民 한 사람이 鄭監司한테 억울하게 맞아죽은 것을 圓覺社에서 上演했는데, 鄭監司의 後孫들이 上演中止 運動을 하고 야단이었지요. 그 때 被殺된 良民을 金昌煥 氏가 했는데, 舞臺에서 죽어 나올라치면 손님들 중에서 葉錢을 목에 걸어주고 人氣가 굉장했지요.³⁵⁾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신소설 『은세계』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작가 이인직이 창조한 것으로 보인다. 원각사에서 이를 대본으로 삼아 판소리 광대들과 기생들로 하여금 신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도록 했던 것이다.³⁶⁾ 따라서 동문사에서 발간된 신소설 『은세계』는 기존의 통설처럼 광대

35) 대담, 「가무(歌舞)의 제문제 - 이동백·한성준 대담」, 《춘추》, 1941.3, 151면.

“그때에 원각사에서 무엇을 했는고 하면 「춘향전」이니 「토끼타령」이니 하는 판소리도 하였지마는, 그 당시에는 특히 유명한 것은 「최병두 타령」이란 것이었다. 지금은 「최병두 타령」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분이 많겠지마는 그 당시에는 어찌나 유명했는지 모르는 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유래는 무엇이나 하면 정 모라는 탐관오리가 있어 강원감사를 갔을 때 그 고을 백성 최병두의 재물을 탐내어 최가는 장폐시키고 그 재물도 들어먹었으므로 그 자손이 하도 억울해서 돈 몇 만 냥 갖다가 김옥균 씨에게 주고 최병두의 신원을 해달라고 했으므로 김씨는 그 돈으로 원각사를 일으키고 「최병두 타령」이란 것을 만들게 해서 정모씨의 간악한 것과 최병두의 억울한 것을 일반이 알게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각사에서 밤낮으로 「최병두 타령」을 한다니까 그 정모란 이의 집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들으니 그 집 후원에다가 단을 모아놓고 밤마다 빌기를 원각사가 열른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이동백 회고기」, 《조선일보》, 1939.3.29. 최원식, 『은세계』 연구, 앞의 글, 43~44면에서 재인용.)

36) 그러나 원각사에서 실제로 공연된 『은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대체로 공연에 참가했던 광대들의 기억을 통해서 신연극 『은세계』가 “창극”으로 연행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소설 『은세계』로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작품 전체가 창극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최원식, 양승국(『한국현대희곡론』, 연극과인간, 2001)은 작품의 전반부만이 창극으로 연행되었으리라는 주장을 펴고, 김영민(『한국근대소설사』, 도서출판 숲, 1997)은 작품을 삼분하여 삼입가요가 많이 등장하는 중반부만이 창극화되었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김재석(『개화기 연극 ‘은세계’의 성격과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15, 2002)은 소리 위주의 창극이 아닌, 대화가 주되면서 창이 섞인 방식의 공연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대의 신문기사를 보면 1909년 5월에 일본 연극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이인직이 “모든 연극을 일본법을 모범할 자로 창부와 공인들이 일사 위한하고 일본연극을 연습”(《대한매일신보》, 1909.5.15)하도록 한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인직은 적어도 『은세계』를 공연할 때까지는 일

들에 의해 창조된 판소리(혹은 창극) 『최병두 타령』을 이인직이 개작한 것이라고 기보다는 이인직의 개인적인 창작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Ⅲ. 「은세계」에 나타난 구술성의 흔적들

신소설 「은세계」가 이인직의 개인적인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적인 서사물은 한 개인에 의해서 완성된 후에 공공의 영역 속으로 출판하는 까닭에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은세계」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보면 이야기의 내용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모순들이 잠재되어 있다. 한 사람이 창작했다고 하기에는 앞 뒤 부분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신소설 「은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병도를 살펴보자. 작품 속에서 최병도는 “강릉서 수대 사는 양반”(8면)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선대부터 이미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몰락양반에 지나지 않는다. 최병도를 압송하려 온 감영 장차들이 “여간 최병도 같은 양반은 개 팔아 두냥 반 만치도 못하게 보고 마구 다루는 판이라 두 손목에 고랑을 잔뜩 채우고 차사례를 달라”고 할 정도로 한미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몰락 양반이었던 최병도가 어떻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최병도가 양반의 허울을 벗고 돈 모으기에 열중한 것은 김옥균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김옥균이 망명하자 고향 경금마울로 돌아온 최병도는 “내외가 억척으로 벌어서 생일이 되어도 고기 한 점 아니 사먹고”(3면) 모으기만 해서 천석을 추수하는 부농으로 성장했다. 작가는 이것을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불과 몇 해 동안”에, 정확히 말해서는 천석 부부를 “이태, 삼 년 머슴”(68면)을 들이면서 그토록 많은 돈을 모

본식 연극개념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 미야코신문 시절의 연극 관련 활동을 염두에 두고 신연극 「은세계」와 일본 연극을 연결시킨 다지리 히로키의 논의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약, 『은세계』가 역사적 실존인물을 소설화한 것이라면, 이인직은 개화파 지도자인 김옥균과의 연관성을 위해서 재산 축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듯 많은 돈을 모은 최병도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 역시 작품 속에서 일관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최병도가 감영에 끌려갈 때 모두 나와서 걱정한다. 그리고 김정수의 선동에 의해 민요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곧이어 최병도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본래 최병도는 경진 동네에서 득인심한 사람이라 양반, 상인 없이 최씨의 소문을 듣고 최씨를 보러 온 사람이 많으나, 장차들이 최씨를 수직하고 앉아서, 누구든지 그 방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터이라. (14면)

최병도가 인심을 그렇게 얻은 것은 아니나, 강원 감사에게 학정(虐政)을 받고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라, 초록은 한 빛이 되어 감사를 원망하고 최병도의 일을 원통히 여기던 차에, 최병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남의 일 같지 아니하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최병도 집에 와서 화투볼을 질러 놓고 밤을 새우면서 공론이 부산하다.(51면)

실제로 “덧문을 척척 닫고 자리 펴놓고 들기름 등잔에서 그늘음이 꺼렇게 오르도록 돋워 놓고 앉아서 집뽕 한 뽕씩이나 되는 숫까지 늘어놓고 한 짐 두 못이니 두 짐 닷 못이니 하며 구실돈 셈을 놓”(6면)고 있는 최병도의 형상에서 우리는 이제에 투철한 조선 후기 부농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병도가 놀부의 형상을 계승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에 대한 욕망, 곧 부르조아지로서의 성장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흥부전』을 통해서 익히 보아왔듯이 “재물에는 대단히 굳은”(55면) 놀부형 인간들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신망을 보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인직 역시 『귀의성』에서 신분적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갈망하던 노비들의 욕망을 철저히 응징한 바 있다.

그런데, 이인직은 최병도를 “재물을 모아 가지고 그 부인과 옥순이를 데리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여 지식이 넉넉한 후에 우리나라를 붙들고 백성을 건지”(55면)고 “한두 사람을 구제하자는 일 아니요, 팔도 백성들이 도탄에 든 것을 건지”(56면)라는 경륜을 지닌 존재로 그려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병

도는 봉건체제를 대표하는 정감사와 대결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영웅으로 탄생한다. 전통적인 판소리 양식이 웃음을 통해 놀부의 인식과 탐욕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인직은 최병도의 경륜과 개화주의를 부각시켜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³⁷⁾

작품의 내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최병도뿐만이 아니다. 최병도의 친구이자 옥남 남매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수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수가 소설 속에서 맨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웬 젊은 양반 하나가 정자관 쓰고 시골 촌에서는 물표 다들 만한 가죽신 신고 서양목 옥색 두루마기에 명주 안을 받쳐 입고, 얼굴은 회오리바람 벗듯 하고, 눈은 셋별 같고, 나이는 삼십이 막 넘은 듯한 사람이 담뱃대 물고 마당에 섰다(15면)

이 장면에서 김정수는 ‘정자관’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서양목 옥색 두루마기’에 ‘명주 안’을 받쳐 입고 있다. 이러한 차림은 서술자의 표현 그대로 강릉 지방 토착 양반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시골 촌에서 물표 다들만한”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작품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김정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궁색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최병도는 자신이 잡혀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네같이 논 한 마지기 없이 가난으로 패호한 사람”(22면) 혹은 “자네는 돈 한 푼 변통하기 어려운 사람”(22면)이라면서 엽전 천 냥을 선뜻 김정수에게 넘겨주고 마을을 떠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³⁸⁾ 그리고 최병도가 죽고 난 후 장례식에 참석한 김정수는 “본래 피천

37) 최병도의 비극성과 숭고미를 더욱 높여주는 것은 최병도의 희생정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양문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요에 동조하는 동네 백성들에게 호령하며 친구를 설득하는 모습, “차라리 나 한몸이 잡혀가서 죽든지 살든지 당할 대로 당하고 동네 백성들이 부지하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최병도의 발언은 고양되고 숭엄한 어조까지 띠고 있다. 최병도에게 일상적이며 비속한 관심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다. 최병도의 비장성을 띤 행위는 인간의 현실적 경험에 위배되고 있다. 즉 최병도의 윤리적 신념이 그 순수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간의 실제 체험의 일부만 고조되고 기타 부분은 불필요한 예외로 돌려 버려지는 것이다”(양문규, 『신소설에 나타난 일상성의 문제』, 《연세어문학》, 1986, 200~202면)

38)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병도가 김정수의 민요를 무마하면서 내놓았던 엽전

대폰 없는”(84면) 사람으로 그려진다. “제 재물이라고는 돈 한 푼 없이 지내면서 꿈쩍할 수도 없”(111면)은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외모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최병도가 감영 장차에게 잡혀갈 무렵 김정수가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아 민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 때문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례하기는 하였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 집 사랑에서 너희들을 불러서 이를 일이나, 지금 당장에 이 댁 최서방님이 영문으로 잡혀가시는 터에, 급히 너희들더러 청할 말이 있는 고로, 내가 여기서 방에 있는 너더러 좀 나오라 하였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욕을 보았다. 오냐, 여러 말 할 것 없다. 너희들 같은 놈은 어디 가서 기승을 부리다가 남에게 맞아 죽는 일이 더러 있어야, 이후에 다른 장차들이 촌에 나가서 조심하는 일이 생길 터이니, 오늘 너희들은 살려 보낼 수 없다.” (18~19면)

이러한 권위의식은 앞서 살펴보았던 “시골 촌에서 물표 다들만한” 차림을 한 김정수의 외모와 관련성을 지닌 것이기에 소설적인 설득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김정수의 의식은 곧이어 최병도의 장례식에서 부정된다. 김정수는 “피천대폰 없는 난봉”(84면)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수의 형상에서 나타난 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옥남 남매를 교육시키기 위해 화성돈으로 떠난 김정수는 최병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사상(國家思想)이 머리에 가득 찬 사람”(110면)이지만, “최씨의 유언으로 최씨의 집을 보아 주느라고 헤어나지를 못한 고로, 세상에서 김씨의 유지한 줄을 몰랐”(111면)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인물 형상의 혼란은 근대적인 서사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다. 인쇄를 통해서 출판되는 근대 서사물은 이전의 구술적인 서사물과는 달리 텍스트의 고정성과 체계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판소리가 유기적인 일

천냥은 “그때는 엽전 시절이라, 새끼 뱀 큰 암소 한 필을 팔아도 칠십 냥을 받기가 어렵고 좋은 봇돌논 한 마지기를 팔아도 삼사십 냥이 넘지 아니할 때”라는 서술자의 언술을 고려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임에 분명하고, 최병도 역시 엄청난 갑부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과장적인 진술이라면, 그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광대 특유의 구술적인 언어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부분의 독자성”을 보이는 것은 기억을 통한 전승이라는 구술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신소설 『은세계』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인직 개인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체계성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행을 담당했던 광대·기생들의 영향력이다. 앞서 《황성신문》 기사(1)와 《대한매일신보》 기사(5)를 살펴보면, 이인직이 연극 공연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08년 7월 26일 원각사를 개장하고 광대와 기생을 모집하여 『은세계』의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일에 이인직은 “일본 연극”을 관람하기 위하여 도일했던 것이다. 따라서 1909년 5월 무렵에 귀국할 때까지 실제 공연을 보지도 못했으며, 연행자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경험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소설 『은세계』에는 분명히 전대의 구술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눈 내리는 경금 마을을 묘사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우리는 『혈의 루』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인직의 소설은 대체로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행위나 언어를 전달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인물의 대화와 서술자에 의한 진술은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마치 희곡과도 같이 발화자를 괄호 속에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자의 말과 작중인물의 말을 명확히 경계짓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인물들의 발화는 서술자의 진술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전대소설의 간접화법이 직접화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³⁹⁾을 통해서 서술자 역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최병도가 원주 감영으로 끌려간 직후부터 서술자의 모습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 『은세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언어적 자질은 묻고 답

39) 개화기의 문체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듯이 지문과 대화가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서술자의 진술이 ‘-더라’체의 종지법을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다’체의 현대적인 종결어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지문과 대화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술자와 작중인물의 언어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주목된다.(이재선,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일조각, 1972, 244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문들이다. 이러한 언어적 자질은 신소설 『은세계』에서 모두 열여덟 차례나 나타난다.

- ① 그것은 무슨 곡절이고? (31면)
- ② 그 하는 일은 무슨 일이고? (31면)
- ③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31면)
- ④ 쉬운 것은 무엇이고? (32면)
- ⑤ 콩 만하게 줄어드는 간은 겁이 나서 그러하거니와, 자라 몸뚱이같이 널브러지는 간은 무슨 곡절이고? (36면)
- ⑥ 무슨 죄가 삼시간에 생겼는고? (39면)
- ⑦ 무슨 까닭으로 별옥을 지었으며 무슨 까닭으로 부자를 잡아 오면 따로 가두는고? (39면)
- ⑧ 무슨 까닭으로 그 꼭대기에 묻어 달라 하였는고? (73면)
- ⑨ 무슨 근심이고? (79면)
- ⑩ 그러한 아이를 무슨 까닭으로 해산구원하던 사람이 부인의 귀에 말을 그렇게 놀랍게 하여 드렸던고? (81면)
- ⑪ 그것은 무슨 곡절이고? (83면)
- ⑫ 무슨 곡절로 지계문만 남겨 놓고 다른 문은 다 봉하였던고? (88면)
- ⑬ 옥순이가 산에 무슨 정이 들어서 그리 간절히 생각하는고?(93면)
- ⑭ 그 마음 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고?(110면)
- ⑮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112면)
- ⑯ 어찌하여 그렇게 속이 터지는고? (119면)
- ⑰ 박을 타는 것 같다 하는 말은 웬 말이고? (119면)
- ⑱ 대체 그 박씨가 어느 바람에 불려온 것이고? (120면)

서술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체적 특징은 이인직의 다른 소설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혈의 루』, 『모란봉』, 『치악산』 등에서는 이러한 어투가 사용된 적이 없고 오직 『귀의성』(92면)에서만 단 한차례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어투는 형식적으로는 발화자(곧 서술자)의 자문자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수화자(독자 혹은 관객)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발화자와 수화자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적인 상황은 근대적인 서사 문학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이다. 근대적인 작가는 독자들로부터 독립된 채 작품을 완성하고, 완성된 작품은 인쇄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독자의 반응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술자는 자신이 상정한 독자를 향하여 일방적이고 독백적인 방식으로 말할 따름이다. 작품의 완성도 혹은 일관된 체계도 이러한 익명의 독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은세계』의 전반부에서 객관적인 기록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서술자는 점차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구연자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익명의 독자가 아니라 관객이 눈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술상황은 전통적인 구술성의 세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⁴⁰⁾

신소설 『은세계』에서 구술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삽입가요를 들 수 있다. 최병도가 경금마을에서 원주 감영으로 잡혀간 이후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불려진 ‘불가사리 노래’부터 시작하여 농부가, 초동가, 자탄가, 급주가, 상두가, 달구노래 등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런데, 이 삽입가요들은 신소설 『은세계』의 내용 전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삽입가요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삽입 가요들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적지 않다. 삽입가요들은 당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민요 혹은 잡가류를 차용하고 변용한 것이어서, 최병도의 비극성을 고양하고, 봉건제도의 부조리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소설 『은세계』는 “읽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연행을 위한” 텍스트로 창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의 성격, 작품의 구성 등등 여러 측면에서 구술적인 면모가 도입된다. 당대의 여러 연행 양식 중에서 민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전통 민요들을 삽입됨으로써 작품의 체계성 대신 민중 교화라는 정치적·계몽적 목적이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관객 혹은 내포독자가 묻고 서술자 혹은 내포작가가 대답하는 발화 양식 역시 계몽의 목적과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말할 것을 스스로 물어봄으로써 그 전달내용에 대하여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담화 전략이었던 것이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의병들에게 붙잡힌 옥남이 장황한 연설을 하는 것

40) 구술적 전통 아래에서 서술자는 (1)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객관적 거리가 결여되어 있고 (2)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참여의 경향이 매우 강하며, (3) 반복·나열 등 장황하거나 말이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도 기술성의 측면에서는 미완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연행 상황 속에서 매우 강렬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양식의 혼합은 이인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수정이나 첨삭, 혹은 개작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 1904년 11월에 이인직이 『별주부전』을 번역⁴¹⁾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이인직이 전통적인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관심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⁴²⁾ 그런데 관객을 염두에 둔 문답식 지문이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삽입가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최병도 투옥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후자의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즉, 이인직이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건너갔으며, 당대의 출판 관행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 준비 과정에서 광대들에 의해 첨삭·수정·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IV. 「은세계」의 과도기적 성격과 의미

개화기는 전통적인 문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구술성이 기술성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한자 혹은 한글로 표현된 문자문학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술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판소리계 소설은 인쇄술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술성의 차원에 있던 판소리를 “채록”하거나 “전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경판·완판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활자로 인쇄되는 과정에서 구술문학으로서의 판소리는 기술문학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판소

41) 다지리 히로키(田尻浩幸), 「국초 이인직론-이인직의 생애와 ‘혈의루’, ‘은세계’에 나타난 사회진화론의 수용 및 입헌개혁신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91, 7면. 이 연구에 의하면 이인직이 번역한 것을 일본인 아동문학자 大江小波(1870-1933)가 『龍宮の使者』로 편집하여 출판했다고 한다.

42) 이상경, 앞의 글, 86면.

리게 소설로 변용되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구술성과 기술성 사이의 상호관계는 비단 판소리게 소설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화기에 새롭게 출현한 신소설 양식은 근대적인 인쇄술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지향하던 출판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인직, 이해조와 같은 개인 창작자의 등장 역시 기술성이 지배적인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음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의 소설이 전적으로 기술성의 차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소설 『은세계』은 전통적인 광대들과 기생들을 동원한 연행물이었던 신연극 『은세계』의 공연 텍스트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행방식에서 지배적이었던 구술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추측된다. 문자로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문자문화의 영향권에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말로써 내용을 표출하고자 하는 ‘연행상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인직의 다른 소설에 비해 『은세계』가 구술적인 요소를 많이 간직하게 된 것은 신연극의 대본이라는 이 작품의 존재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광대나 기생들만이 극장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문화적인 조건 아래에서 전통적인 구술성은 신소설 텍스트 『은세계』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주제어 : 구비성과 기술성, 은세계, 이인직, 최병두타령

참고문헌

-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6.
- 김열규·신동욱 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술, 1996.
-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재석, 「개화기 연극 ‘은세계’의 성격과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15, 2002.4.
- 김종철, 「‘은세계’의 성립과정 연구」, 《한국학보》 51, 1988.여름.
-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 서사전통』, 도서출판 월인, 2003.
- 다지리 히로키, 「이인직의 연극 개량과 일본 연극개량」, 《민족문화연구》 34, 다지리 히로키, 『이인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0.
- 다지마 히로키, 「이인직의 都新聞社 견습시절」, 《어문논집》 32
- 양승국, 「신연극과 ‘은세계’ 공연의 의미」, 『한국현대희곡론』, 연극과인간, 2001.
-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양문규, 「신소설에 나타난 일상성의 문제」, 《연세어문학》, 1986.
- 이상경, 「‘은세계’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5, 1994.
- 이재선, 『한국 개화기 소설 연구』, 일조각, 1972.
-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9.2~1940.5.10.
- 임화, 『임화 전집』 1·2, 김외곤 편, 도서출판 박이정, 2001.
- 전광용,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86.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70.
- 최원식, 「‘은세계’ 연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 최진형, 「판소리 서사체의 구술성과 기술성」, 《고전문학연구》 11, 1999.
- 한국영화사학회, 『한국 영화사 연구』, 새미, 2003.
- 마사오 미요시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 월터 J.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Orality and Literacy in Early Korean Novel

Kim, Jong-Uck

The 1900s is a period of transition from oral culture to literary culture. Although there is literature that is written by Hangul or Chinese character at late Chosun-dynasty, orality occupies dominant position than literacy. Pansori-novel that record Pansori presented by performer(Gwangdae) is based on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This circumstance is continued until time that *Eunseggye(silver world)* is published. This work is presented first in Wongaksa on November 15, 1906, and is published on November 20, 1906. This informs that Sinsosul(new roman) *Eunseggye* is foundation of Sinyeongug(new play) *Eunseggye*. Therefore, orality that take charge of important role in traditional performance exerts influence on diction and composition of work.

First, logical inconsistency is discovered several times portraying character in *Eunseggye*. Two important Character, Choebyeongdo or Kimjeongsu, shows confused image in consciousness as well as appearance. Because stability and systemicity are important on novel, this disorganization is exceptional phenomenon. Also, description that narrator seem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udiences often appears. Narrator who appeared by objective chronicler undergoes a change by performer who talk with audience gradually. Finally, this work is created by text for acting and not text to read.

Key Words : orality, literacy, *Eunseggye(silver world)*, Sinyeongug, Choebyeongdo, Kimjeongsu, early Korean novel